

# 쓰레기 이론의 유형학\*

최 은 아 (성신여대)

## I. 들어가며

1990년대 후반 팝문학은 그동안 쓰레기로 간주되어왔던 대중문화에 주목하고 이를 미학적으로 형상화하면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학과 예술 분야에서는 쓰레기의 가치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었지만, 이것이 문학 쪽으로 파급된 것은 겨우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이다. 쓰레기라는 테마는 그것이 지닌 시의성과 문화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의 학술테마로 받아들여지는 여전히 어려운 듯하다. 쓰레기의 미학을 검토할 만한 이론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고, 테마 자체도 주류문학의 관심에서 밀려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테마가 지금까지 전혀 주목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쓰레기라는 테마는 이미 철학, 문화학, 매체학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가령 들뢰즈의 포스트 구조주의나 플루서의 매체이론 또는 아스만의 기억이론에서 연관점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쓰레기에 관한 이론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인문학적 쓰레기담론으로 발전시켜보고자 한다.

인문학에서 쓰레기라는 테마의 대두는 대중문화의 부상 및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잉여생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세기까지 쓰레기로 간주되어왔던 대중문화적인 요소들이 문학 및 예술의 핵심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과연 이러한 현상들이 부각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평범한 일상생활이라는 테마나 무

---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3S1A5B5A070450).

의미한 수다와 잡담, 현재에 대한 관심이나 상업적 브랜드의 열거 등은 보존 가치를 지닌 문화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나 예술 분야에서 나타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제 이러한 ‘쓰레기’들은 새롭게 주목받으며 문화의 저장고로 들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레기와 연관된 현상에 주목 하면서 이에 관한 이론적인 담론을 찾아내고 유형화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토대 하에서 독일현대문학에서 이 주제가 논의되는 양상과 그것의 미학적 형상화방식 역시 다루고자 한다.

먼저 쓰레기이론의 유형화 작업을 위해 기억이론과 매체이론 그리고 문화경제학의 관점에서 쓰레기가 언급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아스만의 이론에서는 쓰레기보다는 기억의 문제가 중심에 놓이지만 정체성 및 문화보관소와 관련하여 쓰레기라는 테마를 기억담론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매체이론과 연관해서 다룬 플루서도 쓰레기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지만, 그가 짧은 에세이에서 다룬 쓰레기에 관한 부분을 매체이론과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틀 속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리스 그로이스나 마이클 톱슨 같은 이론가들이 문화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화두로 떠오른 쓰레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겠다.

## II. 문화적인 기억과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관점에서 본 쓰레기

### II.1 문화적 기억 담론과 쓰레기: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연구의 권위자인 알라이다 아스만은 그녀의 저서 『기억의 공간 Erinnerungsräume』(2009)에서 반(反)기억 즉,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잊히고 폐기처분되어야 할 쓰레기의 존재를 언급한다. 주 관심사인 문화적인 기억이 핵심담론이지만 쓰레기라는 테마도 기록물보관소(Archiv)의 대척점에서 거

론한 것이다. 이 부분이 기억담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기기는 하지만 사실 쓰레기담론에 그다지 많은 가치와 관심이 부여된 것이라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쓰레기를 중심으로 위의 담론을 고찰해볼 때 이 부분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그녀가 언급한 쓰레기의 ‘반(反)문화 Antikultur’적이고 ‘반(反)가치 Antiwert’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것의 문화적인 잠재력과 창조적인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 보려고 한다.

먼저 아스만의 기억담론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쓰레기가 기억과 맺고 있는 관계의 다양성이다. 기억을 중심으로 고찰할 때 기억의 잔재로 언급되는 쓰레기가 아니라, 초점을 쓰레기에 맞출 때 드러나는 쓰레기와 기억의 관계, 정확하게는 ‘문화적인 기억’과 ‘정체성 형성’에 쓰레기가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관점은 쓰레기를 소재로 삼거나 테마화한 문학작품의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아스만이 ‘문화적인 기억’과 관련하여 쓰레기의 어떤 기능을 언급하는지 살펴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바로 아스만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쓰레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아스만은 폐기처분되지 못하고 기록물보관소에 쌓여 있는 기록물들을 쓰레기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적인 잔여물이며 소위 ‘보존적 망각’<sup>1)</sup>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 부분에서 아스만은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이 어떻게 ‘보존적인 망각’의 영역에 있으면서도 후대에 재발견 내지 재해석되어 문화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는가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로 아스만이 언급하고 있는 쓰레기는 ‘쓰레기 기록물보관소’<sup>2)</sup>이다. 여기에서는 기록물보관소와 대척점에 있는 쓰레기가 어떻게 예술가들에 의해 또 다른 기록물보관소로 구축되어 문화적인 기억으로 변화하는지, 즉 예술가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쓰레기로서의 ‘반기억 Antierinnerung’을 어떻게 문화적인 기억으로 변환시키는

1)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 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2. 215쪽.

2) 아스만: 기억의 공간, 541쪽.

지가 설명된다. 아스만은 ‘쓰레기 기록물보관소’라는 개념을 통해 은연중에 쓰레기가 지닌 역사적인 성격과 사회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성격을 부각시킨다.

일반적인 쓰레기에 대한 정의와 쓰레기로서의 ‘저장기억’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 “쓰레기는 완전히 쓸모없거나 소실되거나, 파괴되어서 새로운 대상으로 보충되는 효용 가능성의 영역에서 ‘벗어난’ 대상들을 말한다.[...] 어떤 대상에서 사용가치의 상실은 곧 기능과 의미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쓰레기는 사회가 관심과 주의를 갖지 않는 대상들이다.”<sup>3)</sup> 아스만의 ‘저장기억’이라는 개념은 집단적인 기억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불필요하고 시대착오적이며 낯설어진 것, 독립적이고 추상적으로 정체성을 규정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선택되지 않은 가능성, 아직 쓰이지 않은 기회와 같은 다양한 목록들”<sup>4)</sup>을 의미한다. 아스만은 개인적, 사회적 기억 속에 들어와 축적되는 모든 기억을 “저장기억”으로, 그러한 내용을 분류하고 평가하여 문화적인 기억으로 끌어올리는 기억을 “기능기억”<sup>5)</sup>으로 지칭하고 있다.

쓰레기로서의 저장기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장기억’의 축적과 문자발명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저장수단으로서의 문자가 보급된 이래 문화적인 기록물이나 추상적인 지식 그리고 전통과 같은 것들은 방대하게 축적될 수 있었다. 역사의 진행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를 지닌 것들이 생겨나고 이 가치가 기록물보관소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기존의 자료들이 쓰레기로 재분류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폐기처분할 기록물의 평가가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문화적인 기억이 쓰레기로 재분류되고 어떤 기억이 문화적인 가치로 보존되는지는 가치와 무가치에 대한 시대적 평가에 맡겨진다. 즉, 기록물보관소와 쓰레기는 시대적 평가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인 것이다.

아스만의 기억이론에서 언급한 저장기억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에 쏟아져 나온 펄문학 작품들은 바로 이러한 창조적

3) 아스만: 같은 책, 524쪽.

4) 아스만: 같은 책, 185쪽.

5) 아스만: 같은 책, 175쪽. 저장기억과 기능기억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175쪽부터 시작하는 6장을 참조할 것.

인 쓰레기로서의 저장기억을 테마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문학적 흐름이 그동안 문화적 찌꺼기로 분류되었던, 즉 소위 말하는 보존적인 망각의 영역에 속해있던 가치에 주목하고 이것을 재평가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독일 팝문학은 기존에 보존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 문화적인 기억으로 편입되었던 것들과 전혀 다른 성격의 기억들이 문화적인 기억으로 수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쓰레기담론으로 분석할 경우 “미래 기능기억의 비축 창고”<sup>7)</sup>로 간주되는 저장기억 속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대중문화적인 요소나 자질구레한 일상, 쓰레기로 취급받았던 요소들이 갑자기 보존하고 목록화해야 하는 문화적인 기억으로 등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례를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로프 디터 브링크만은 『컷 Schmitte』(1988)<sup>8)</sup>에서 당시 독일에는 낯설었던 여러 가지 형식기법을 차용하였다. 미국의 윌리엄 버로우스가 사용했던 ‘컷업 Cut-up기법’이나 타임지, 만화, 각종 성인잡지를 활용한 콜라주 기법이 그의 작품에도 등장한다.<sup>9)</sup> 그가 수집한 다양한 대중문화적인 요소 - 신문, 성인잡지, 만화, 사진들은 문화적인 기억으로 수용되었지만, 이것은 1960년대에 독일 문학계에서 전혀 문화적인 기억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쓰레기와 같은 것이었다. 주목할 점은 독일현대문학작품에서 이런 쓰레기의 테마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루저의 시선을 선택한 벤야민 슈트크라트-바레의 『솔로앨범 Soloalbum』(1998)<sup>10)</sup>의 경우, 주인공은 자신이 사귀어온 여자들의 목록을 작성한다든지 빌트 지에 실린 나체 여성 화보를 모으면서, 그들을 이름과 직업, 나이와 취미에 따라 세심하게 분류한다. 주인공이 시내를 산보하면서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여자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메모를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앨범 오아시스의 노래 중 10곡을 목록으로 만드는

6) Vgl. Moritz Baßler: Der deutsche Poproman. Die neuen Archivisten. München 2002.

7) 아스만: 같은 책, 188쪽.

8) Vgl. Rolf Dieter Brinkmann: Schmitte. Köln 1988.

9) 최은아: 로프 디터 브링크만의 컷 Schmitte에 나타난 형식적 기법 연구. 실린 곳: 카프카 연구 제 26집 (2011) 247-280쪽 참조.

10) Vgl. Benjamin Stuckrad-Barre: Soloalbum. Köln 2009.

행위는 루저의 눈을 통해 본 일상이 어떻게 문화적인 기억으로 편입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sup>11)</sup> 알렉사 헤니히 폰 랑에의 작품에서 테마화 된 마약이나<sup>12)</sup> 엘프리데 옐리네크의 『욕망 Lust』 (1992)<sup>13)</sup>에서 표현된 거침없는 외설적 성은 주도담론에서 벗어나 있던 쓰레기적인 요소의 저항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로 언급할 수 있다.

외설과 포르노그래피, 퇴폐와 타락 그리고 마약 폭력과 같은 테마가 문화적인 기억 속으로 편입되면서 독일현대문학은 외면되고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토론과 성찰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존적인 망각의 영역인 저장기억에 속했던 소위 의미 없는 것들이나 무용한 것들 즉, 쓰레기로 간주되었던 것들이 현대에 들어와 새로운 기능기억에 의해 문화적인 기억으로 선택되고 의미연관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적 시각에서 쓰레기로 취급되던 대중문화나 일상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쓰레기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중주체의 주도적인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동시에 쓰레기가 지닌 역사성과 사회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면모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 II.2. 포스트모던적인 형상화방식으로서의 쓰레기: 빌럼 플루서

매체변화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찾아냈던 플루서는 쓰레기의 창조적인 측면에도 주목했다. 그의 에세이집인 『사물과 난센스. 현상학적 스케치 Dinge und Undinge. Phänomelogische Skizzen』 (1993)와 후기작인 『의사 소통학에 대한 계속적 성찰. 보훔 대학 강연집 Kommunikologie weiter denken. Die Bochumer Vorlesungen』 (2009)에서 쓰레기에 관한 단상 두 편을 찾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매체미학적인 측면에서 플루서의 쓰레기담론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겠다.

11) 정향균: 벤야민 폰 슈투크라트 바레의 『솔로 앨범』에 나타난 미적 가상과 자기반어. 실린 곳: 독일문학. 제125집 (2013) 229-254쪽 참조할 것.

12) Vgl. Alexa Hennig von Lange: relax. Berlin 1999.

13) Vgl. Elfriede Jelinek: Lust. Berlin 1992.

플루서는 이 두 편의 글에서 쓰레기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는 한편으로 ‘반(反)문화 Antikultur’적인 속성을 지닌 ‘쓰레기 Müll’를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관점에서 ‘재활용쓰레기 Abfall’의 창조적인 활용을 통한 혁신적인 정체성의 구성도 제안한다.

『사물과 난센스』에는 ‘병 Flasche’이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실려 있다. 매체학적인 관점에서 쓰레기담론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 에세이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는 삼페인을 마신 후 빈 병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관찰하며, 이를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로 빈 병을 완전히 쓰레기로 간주하여 깨버리는 경우, 이 행위는 환경오염 차원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비유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과거를 묻어두고 망각하려는 행위로 평가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서는 아무런 정체성도 형성될 수 없다. 두 번째는 빈 병을 기념품으로 간직하는 태도이다. 빈 병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규범과 행위규칙에 순응하여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빈 병을 재활용함으로써 다른 것으로 전환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재활용된 빈 병은 전통과 단절함으로써 새롭게 정체성을 창조하는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sup>14)</sup> 쓰레기 담론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깨진 병처럼 인간의 생산품이 쓰레기가 되는 첫 번째 경우이다.

플루서는 깨진 빈 병처럼 형태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을 ‘쓰레기 Müll’로 부르며, 이를 “반자연 Antinatur”<sup>15)</sup>으로 규정한다. 반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산해낸 유무형의 대상이 사용가치를 다한 후에도 완벽하게 자연으로 회귀되어 무(無)가 되지 못하며 흔적을 남김을 의미한다. 쓰레기가 된 것들은 그저 가치를 잃고 가치 없는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 ‘반가치 Antiwert’이며, 형태만 변형되기에 일종의 ‘반형태 Antiform’이기도 하다.<sup>16)</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플루서가 쓰레기를 소비중심주의 사회가 낳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

14) Vgl. Vilém Flusser: Dinge und Undinge. Phänomenologische Skizzen. München 1993, S. 11-26.

15) Flusser: Dinge und Undinge, S. 23.

16) Vgl. Flusser: a. a. O., S. 21.

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사물과 난센스』에서 과도한 정보로 가득 차 있는 소비 지향적인 사회에 문화비관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쓰레기의 실질적인 창조적 잠재성에 대해 회의를 표명하기도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쓰레기에 대한 그의 입장은 긍정적으로 선회한다. 쓰레기 대신 재활용쓰레기를 다루는 『의사 소통학에 대한 계속적 성찰. 보훔 대학 강연집』에서 이러한 입장 선회가 잘 드러난다.

플루서는 이 책에서 기원전 2500년경에 사람들이 도구로서의 돌뿐만 아니라 돌을 날카롭게 만들 때 돌에서 ‘떨어져 나온 abgefallen’ 파편에 주목하였다는 점에 착안한다. 그는 특히 이렇게 ‘깨어져 떨어져 나온 조각 Abfall’이 창조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은 구석기 시대에 돌촉을 계속 갈지 않고 돌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쥔 사람에게서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다. “사람들은 도구에서 눈을 떼고 떨어진 조각을 쳐다본다.”<sup>17)</sup>

재활용쓰레기의 창조성에 대한 플루서의 성찰에 주목할 경우에 아스만과는 또 다른 유형의 쓰레기 분석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창조적인 재활용쓰레기라는 개념과 ‘반복적이고 상투적인 일상’이라는 기존문학의 소재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을 형상화할 수 있는 문학적인 방법을 연결시킬 수 있다. 플루서의 성찰을 발견할 수 있는 문학작품이면서 쓰레기의 의미맥락이 더욱 뚜렷해지는 작품으로 괴츠의 『모든 이를 위한 쓰레기 Abfall für alle』(2003)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괴츠는 전체 테마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반복적이고 의미 없고 비생산적인 일상이라는 소재에서도 재활용쓰레기와의 유사점을 찾아낸다. 테마와 소재에서만 재활용쓰레기가 주목받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괴츠가 이러한 테마와 소재를 형식적인 면에서도 그대로 구현해내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sup>18)</sup> 864쪽에 달하는 이 작품에는 당연히 이르러 기대하는 거대 서사나 줄거리가 없으며 그 대신에 거의 분과 초 단위로

17) Flusser: Kommunikologie weiter denken. Die Bochumer Vorlesungen. Frankfurt a. M. 2009, S. 54: “Man schaut ab vom Werk und schaut hin zum Abfall.”

18) Vgl. Hang-Kyun Jeong: Ästhetik des Abfalls. Eine Überlegung zu *Abfall für alle* von Rainald Goetz. In: Wirkendes Wort. Heft 2(2011), S. 259-271.



쫄깸 일상이 기록된다. 반복적인 일상이라는 소재는 스타카토식 글쓰기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쓰레기담론은 이러한 형상화방식을 통하여 포스트모던적인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게 된다. 괴츠의 작품에서 “팽창, 분할, 폭발, 비트와 조각 Expansion, Teilung, Explosion. Bits and Pieces”<sup>19)</sup>으로 형상화된 일상이 아마로 플루서가 말한 “떨어져 나온 abgefallen”<sup>20)</sup> 조각들에 집중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sup>21)</sup> 괴츠에게 재활용쓰레기는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으로가 아닌 매분, 매초를 현재로 경험하는 포스트모던 사회를 서술할 수 있는 하나의 메타포인 동시에 형상화방식으로 이해된다.

### Ⅲ. 문화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 쓰레기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제일 먼저 부상한 분야는 기억이론이나 매체이론 같은 인문학보다는 경제학이었다. 쓰레기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규정하는 산업쓰레기나 쓰레기 재활용 같은 경제적인 측면은 쓰레기의 본질적인 측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회 경제학적 연구에서는 쓰레기의 가치가 변화하는 이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장에서는 보리스 그로이스와 마이클 톱슨을 중심으로 쓰레기에 대한 경제학적인 고찰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의 문학적 의미도 살펴보고자 한다.

톱슨과 그로이스는 쓰레기를 문화와 경제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성찰한다. 톱슨이 좀 더 수학적이고 경제적인 모델의 쓰레기이론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19) Rainald Goetz: Abfall für alle. Roman eines Jahres. Frankfurt a. M. 1999, S. 114.

20) Flusser: Kommunikologie weiter denken, S. 54: “Diese kleinen feinen Chips, die da abgefallen sind, sind ein Wunderwerk an Schönheit.”

21) 이와 관련된 다음의 두 논문을 참조할 것. 최은아: 라이날트 괴츠의 모든 이를 위한 쓰레기 분석 - 보토슈트라우스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의 관점에서. 실린 곳: 카프카연구 제23집 (2010), 151~178쪽. 그리고 Hang-kyun, Jeong: Ästhetik des Abfalls. Eine Überlegung zu Abfall für alle von Rainald Goetz. WIRKENDES WORT.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in Forschung und Lehre. 61. Jahrgang. Heft 2, August 2011.

쓰레기의 순환과정에 초점을 맞춘 그로이스의 이론은 창조적인 반복의 실현을 위해서 쓰레기로 분류되는 무가치에 주목한 들뢰즈의 이론과도 접점을 찾을 수 있다.

### III.1. 가치전도된 쓰레기로서의 새로운 것: 보리스 그로이스와 질 들뢰즈

그로이스는 일상공간에 속한 쓰레기가 가치재정립이라는 혁신과정을 통해 문화보관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 이로써 그는 일상공간에 존재하는 쓰레기에 문화적인 잠재력을 부여한다. 일견 간단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사실 그로이스의 주된 관심테마는 쓰레기보다는 ‘새로운 것 *das Neue*’에 대한 정의였다. 그로이스의 저서 『새로운 것에 관하여. 문화경영에 관한 시론 *Über das Neue. Versuch einer Kulturökonomie*』(1992)에 따르면, ‘새로운 것’이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독창적으로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재평가하여 재발견해낸 것을 의미한다.<sup>22)</sup> 새로운 것을 가치의 변화로 본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로이스가 ‘새로운 것’으로 본 것은 가치재정립으로서의 ‘혁신’이 일어나 일상의 영역에서 문화보관소로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 즉, 그로이스에게 새로운 것이란 니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가치전도 *Umwertung der Werte*’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것과 쓰레기는 개념상 대척점에 있지만 그로이스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둘의 경계는 혁신을 통해 지양되며 순환 고리로 연결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그로이스의 ‘새로운 것’에 대한 성찰을 특히 일상공간의 예술화를 시도했던 팝아트 및 박물관을 쓰레기로 채우는 ‘재활용쓰레기예술 *Abfallkunst*’과 연관시킬 수 있다.

22) Vgl. Boris Groys: *Über das Neue. Versuch einer Kulturökonomie*. München 1992, S. 49.

일상의 영역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온갖 쓰레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해석**이다. 다만 해석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변화된 가치’일 뿐이다. 예술사에서 이러한 예들은 부지기수다. 마르셀 뒤샹은 변기를 분수로 해석했고, 앤디 워홀은 흔한 캠벨 통조림을 예술작품으로 재해석하였다. 모두 일상의 기성품을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혁신을 이루어낸 예들이다. 리움 미술관 소장품인 제프 쿤스의 ‘하트’처럼 키치가 고급 스틸 소재로 재탄생하는 경우에 이것은 미적가치에 대한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로 파악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학도 마찬가지이다. 혁신(가치재평가)을 통해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면, 이 해석은 곧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로이스는 혁신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격인상 *Valorisierung*”<sup>23)</sup>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며, 새로운 것을 문화경제적인 논리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진부하고 무가치한 쓰레기에 비해 문화적인 가치로 인정받은 새로운 것은 경제적인 가치도 부여받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징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예술가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많은 이윤을 가져다주는 작품(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것과 차별되는 가치 있는 ‘새로운 것’의 추구는 예술적인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2012년 독일 구겐하임 미술관은 가브리엘 오르츠코의 ‘성좌 *Asterisms*’<sup>24)</sup>라는 설치예술을 전시하였다. 이 흥미로운 설치예술의 재료는 해안가에 떠밀려온 산업쓰레기였다. 사진과 오브제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이 시대에 ‘새로운 것’을 끌어올리는 저장고로서의 일상의 가치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예이다.

그로이스의 이론에서 중심개념을 꼽아보자면, ‘일상 공간’과 ‘문화보관소’ 그리고 이 둘의 가치경계를 넘을 수 있는 전략으로서의 ‘혁신’이다. 먼저 “일상이라는 공간은 잠재적인 새로운 문화적인 가치들이 모여 있는 저장고”이면서 “가치 없는 것,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흥미롭지 않은 것, 문화에 속하지 않는 것, 의미 없는 것, 덧없는 모든 것”<sup>25)</sup>들이 속한 영역으로 이해된다. 그

23) Groys: *Über das Neue*, S. 121.

24) <http://www.guggenheim.org/new-york/exhibitions/past/exhibit/4775>

로이스는 일상공간에 잠재적인 문화보관소 역할을 부여한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공간이 사실상 문화보관소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획득한다. 이 일상공간에서 눈에 띄지 않게 적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는 비교와 재평가를 거친 가치전환을 통해 문화보관소로 진입할 수 있다.

문화보관소 개념 역시 중요하다. 문화보관소에 저장되는 것은 혁신(가치재평가)의 결과로 높게 가치평가된 것들이다. “새로운 것이란 모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비교해 본 적이 없던 어떤 것을 새롭게 비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비교를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인 기억이란 이런 비교들을 회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sup>26)</sup> 이 논리라면 일상공간과 문화보관소는 가치재평가 작업을 통해 끊임없이 가치교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로이스에 따르면 문화적 가치가 상승된 것들은 모두 상업화될 수 있고, 상업화된 것들은 모두 문화적인 가치를 잃는다. 그래서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 되면 다시 가치상승할 기회를 얻게 된다. 두 영역은 이렇게 계속 서로의 위치를 교환한다.<sup>27)</sup> 이처럼 그로이스는 쓰레기와 문화적인 가치의 관계를 가치 상승과 하락이라는 끊임없는 순환과정의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이러한 반복이 갖는 의미를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Differenz und Wiederholung』<sup>28)</sup>의 관점과 연관시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탈역사주의적인 관점에 따르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혁신은 없으며 모든 것이 단지 반복될 뿐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한다. 이에 반해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동일성의 반복이 아닌 차이의 반복을 주장하며 탈역사주의의 비관적인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바 있다. 들뢰즈는 차이가 반복되고

25) Groys: Über das Neue, S. 56: “Doch gerade der profane Raum dient als Reservoir für potentielle neue kulturelle Werte, [...] Der profane Raum besteht aus allem Wertlosen, Unscheinbaren, Uninteressanten, Außerkulturellen, Irrelevanten und - Vergänglichen.”

26) Groys: a. a. o., S. 49: “Jedes Ereignis des Neuen ist im Grunde der Vollzug eines neuen Vergleichs von etwas, das bis dahin noch nicht verglichen wurde, weil niemandem dieser Vergleich früher in den Sinn kam. Das kulturelle Gedächtnis ist die Erinnerung an diese Vergleiche,”

27) Vgl. Groys: a. a. O., S. 120.

28) Vgl. Gilles Deleuz: Differenz und Wiederholung. München 1992 (orig. 1968).

반복이 차이를 낳는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신디 셔먼의 <무제 영화 스틸 Untitled Film Stills>에서처럼 한 존재의 정체성은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차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존재하다 현실에서 반복될 때 그것의 다양한 모습들이 발현될 수 있다.<sup>29)</sup>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이 자체의 반복을 통해 생성되는 다양한 차이들이 모두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이고 규범적인 시각에 갇혀 있는 사고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다양한 차이들은 빈번히 억압되며 인식되지 못한다.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인지되지 못한 무가치들은 문화의 영역에서 배제되며 쓰레기로 간주된다. 들뢰즈의 이론을 쓰레기라는 테마와 연결시키면, 이러한 쓰레기에 주목하는 것이야말로 동일성의 반복을 막고 그러한 동일화에 저항하고 심지어 그것을 전복시킬 수 있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들뢰즈가 말한 창조적인 반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쓰레기로 분류되는 무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맥락에서 쓰레기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이로부터 ‘쓰레기 이론’을 정립할 때 그로이스의 이론이 충분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 III.2. 파국이론과 쓰레기: 마이클 톰슨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쓰레기를 연구할 경우 선행연구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다른 분야라고 해서 쓰레기를 전면에 내세운 연구가 많은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눈에 띄는 연구가 바로 마이클 톰슨의 『쓰레기 이론 Die Theorie des Abfalls』(1981)이다 그는 현재까지 다른 범주와의 비교 없이 ‘쓰레기 Abfall’라는 테마 자체에 집중한 유일한 인물이다. 톰슨은 수학자인 르네 톰의 ‘파국이론 Catastrophe theory’을 사회학에 접목시켜 독자적인 쓰레기이론을 전개한다.<sup>30)</sup> 파국이론이란 원래 불연속현상을 다루는 수학적인

29) Vgl. cindy sherman: untitled film stil # 15 (1978).

30) Vgl. Michael Thompson: Die Theorie des Abfalls. Über die Schaffung und Vernichtung von Werten. Übersetzt von Klaus Schomburg. Stuttgart 1981, S. 7.

이론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물이 끓을 때까지 온도계를 넣고 수온을 재면서 물의 상태변화를 관찰할 때 끓는점에 가까워질 때까지의 물의 상태는 거의 변화하지 않으나 어느 온도에 달하면 아주 근소한 변화에 의해 물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급변한다. 이와 같이 현재상태를 규정하는 조건의 근소한 변화가 상태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를 ‘파국’이라고 한다.<sup>31)</sup> 톰슨은 이 모델을 사회학에 접목시키서 상당히 수학적인 쓰레기이론을 정립하였다. 먼저 톰슨의 쓰레기 이론을 소개하고 그의 쓰레기이론이 지닌 현재성을 살펴보겠다.

톰슨은 사회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품이나 문화 그리고 아이디어 등의 가치가 변해가는 양상에 주목하며, 대상의 가치를 ‘한시적인, 덧없는 *vergänglich*’ 가치를 지닌 것과 ‘지속적인 *dauerhaft*’ 가치를 지닌 것으로 분류한다. “우리 문화에서 대상은 ‘덧없거나’ 아니면 ‘지속적’이다. 덧없음의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고 존속하는 기간도 제한적이다. 지속성의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상승하고 이상적인 경우에는 영원히 존속된다.”<sup>32)</sup> 그는 쓰레기의 위치를 일종의 제 3의 ‘숨겨진 범주’에 귀속시키는데, 왜냐하면 쓰레기는 아직 덧없음이라는 범주에도 지속성의 범주에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33)</sup> 이 쓰레기에 톰슨은 ‘파국’의 역할을 부여한다. 사회적 재평가를 일으킬 수 있는 근소한 변화요인에 의해 쓰레기 상태에 처한 것의 가치는 급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유무형의 쓰레기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이러한 쓰레기의 처리 또한 하나의 산업으로 급부상한지 오래다. 그렇다면 재활용쓰레기가 어떠한 계기에 의해 사용가치를 지닌 생산품으로 변화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톰슨은 ‘사회경제적인 해석’에서 찾는다. 톰슨 이론의 독창성은 그가 한시적인 가치를 지닌 사물이 쓰레기 상태에까지 가치가 떨어져야 비로소 가치

31) Vgl. [http://de.wikipedia.org/wiki/Katastrophentheorie\\_\(Mathematik\)](http://de.wikipedia.org/wiki/Katastrophentheorie_(Mathematik)).

32) Thompson: Die Theorie des Abfalls, S. 21: “In unserer Kultur sind Gegenstände entweder ‘vergänglich’ oder ‘dauerhaft’. Gegenstände der Kategorie des Vergänglichen verlieren im Zeitablauf an Wert und haben eine begrenzte Lebensdauer. Gegenstände der Kategorie des Dauerhaften nehmen im Zeitablauf an Wert zu und haben (im Idealfall) eine unendliche Lebensdauer.”

33) Vgl. Thompson: a. a. O., S. 25.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가치폭락 없는 쓰레기의 경제적인 가치상승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데에 있다. 특히 가치재평가는 오직 가치폭락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그로이스와 견해가 갈린다.

툼슨은 1879년만 해도 1실링에 지나지 않던 영국의 스티븐회화 *Stevenbilder* 가 1950년에는 1실링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 상태에 처했다가 1971년에는 무려 75파운드의 가치로 경매된 것을 일례로 든다.<sup>34)</sup> 키치가 골동품으로 재평가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돈을 지불하려하지 않는 쓰레기상태까지 가치가 떨어져야 한다. 런던 북구의 이슬링턴에 있는 패킹턴 구역도 같은 단계를 거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재평가된 예이다. 이 구역은 초기 빅토리아 형식으로 지어진 연립주택이 늘어난 긴 거리인데, 유행이 지나 중산층이 사라진 구역은 슬럼가로 전락하고 “낡은 연립주택은 중산층에게는 어느 정도 속물적인 흥미를 낳겠지만, 노동자 계층 출신의 세입자들에게는 적당한 주거지가 아니다.”<sup>35)</sup>라는 판단 하에 철거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 구역은 철거반대론자들에 의해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재평가 받게 되고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된다. 이 두 가지 예는 한시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거의 쓰레기로 전락한 상태에서 사회경제적인 재해석을 통해 쓰레기의 오명을 벗고 영구적인 가치를 부여받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툼슨은 가치가 하락하여 한시성의 가치단계에 있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쓰레기 단계로 진입한다고 본다. 그 반대의 경우, 즉 항구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갑자기 쓰레기로 가치가 하락하지는 못한다. 한시적인 가치의 단계에 들어선 것들만이 쓰레기 단계에서 사회적인 해석을 통해 지속적인 가치범주로 진입할 수 있다. 가치범주의 변화가 가능한 것은 오직 이 경우뿐이다.<sup>36)</sup> 이 점에서 톼슨의 쓰레기모델은 지극히 단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쓰레기 상태로 하락한 가치가 보관가치를 지닌 것으로

34) Vgl. Thmopson: a. a. O., S. 30.

35) Thompson: a. a. O., S. 59: “Alte Reihenhäuser mögen einen gewissen snobistischen Reiz für Mittelschichtangehörige haben, aber für Mieter aus der Arbeiterschicht sind sie keine geeignete Unterkunft.”

36) Vgl. Thompson: a. a. O., S. 73. 도표를 참조할 것.

상승하는 이유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점은 독창적이지만 그는 왜 가치변화가 이렇게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의 가치를 갑자기 상승시키는 사회적 해석이 대두되는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다. 쓰레기를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만드는 것을 그저 유행의 결과로 치부하는 것은 문화사회적인 맥락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위험이 있어 보인다.

그로이스와 톱슨은 모두 문화경제적인 관점에서 쓰레기라는 주제를 고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로이스는 일상공간과 문화보관소라는 상이한 두 공간을 혁신을 통해 넘나들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일종의 순환이론을 제시한다. 일상공간의 쓰레기는 가치재평가 작업을 통해 문화적인 요소로 가치상승할 수 있으며, 이 가능성은 창조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지닌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반면 톱슨은 일시적인 가치를 지닌 것과 영구적인 가치를 지닌 것 사이에 제 3의 심급인 쓰레기를 위치시킨다. 그는 가치의 변환을 단선적인 모델로 제시하는데, 일시적인 가치가 가장 최하위 단계인 쓰레기 상태로까지 하락해야만, 반대로 가치의 급등이 일어나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적인 가치로 상승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로이스의 혁신개념이나 톱슨의 파국개념은 단순한 경제적 관점을 넘어 문화적 대상으로서 쓰레기에 주목하며 그것의 역사적 가치변화를 설명함으로써 문화이론으로서의 쓰레기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IV. 맺으며

쓰레기와 관련된 연관검색어가 대부분 쓰레기재활용, 산업쓰레기 같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쓰레기라는 테마는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고찰되었다. 이에 반해 인문학 분야에서 각종 유무형의 쓰레기가 어떻게 인지되고 담론화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제중심적인 관점은 쓰레기



에 대한 선입견을 확장시키고 그것을 인문학의 연구테마로 확장시키는 것을 막고 있다.

근대적인 시각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소재뿐만이 아니라 이 소재를 담을 수 있는 적절한 문학형식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독일 현대문학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이고 미학적인 토대가 빈약하므로 이 분야의 연구 또한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토대연구를 위해 쓰레기의 중요성이 언급된 문화이론, 문화경제학에서 쓰레기이론 정립을 위한 단초를 찾아보았다.

연구지평의 확장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이 틀을 활용한 작품분석의 예는 그동안 인지되지 못했던 현대문학의 다양한 측면들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노력이다. 실례로 언급한 브링크만과 피츠같은 팝문학 작가들의 작품은 쓰레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할 때에 작품의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의 이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맥락에서 쓰레기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이로부터 '쓰레기 이론'을 정립할 때 유용해 보인다. 마이클 톰슨과 보리스 그로이스의 이론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쓰레기가 대두되고 재평가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이들의 문화경제학적인 입장과 들뢰즈의 구조주의 이론은 서로 접점이 있으며 또한 현대사회에 쓰레기라는 테마가 부상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상호 연관시켜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쓰레기라는 테마는 현대사회와 현대문명의 잉여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해주면,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인문학적 관심과 활발한 연구가 요청된다.

## ■ 참고문헌

-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 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2.
- 정향균: 벤야민 폰 슈투크라트 바레의 『솔로 앨범』에 나타난 미적 가상과 자기반어. 실린 곳: 독일문학. 제 125집 (2013), 229-254쪽.
- 최은아: 볼프 디터 브링크만의 컷 *Schnitte*에 나타난 형식적 기법 연구. 실린 곳: 카프카연구 제 26집 (2011). 247-280쪽.
- 최은아: 라이날트 괴츠의 모든 이를 위한 쓰레기 분석 - 보토슈트라우스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의 관점에서. 카프카연구 제 23집 (2010), 151~178쪽.
- Baßler, Moritz: Der deutsche Poproman. Die neuen Archivisten. München 2002.
- Brinkmann, Rolf Dieter: *Schnitte*, Köln 1988.
- Deleuz, Gilles: *Differenz und Wiederholung*. München 1992 (orig. 1968).
- Flusser, Vilém: *Dinge und Undinge. Phänomenologische Skizzen*. München 1993.
- Flusser, Vilém: *Kommunikologie weiter denken. Die Bochumer Vorlesungen*. Frankfurt a. M. 2009.
- Goetz, Rainald: *Abfall für alle. Roman eines Jahres*. Frankfurt a. M. 1999.
- Groys, Boris: *Über das Neue. Versuch einer Kulturökonomie*. München 1992.
- Hang-kyun, Jeong: *Ästhetik des Abfalls. Eine Überlegung zu Abfall für alle von Rainald Goetz*. In: *Wirkendes Wort 2* (2011), S. 259-271.
- Jelinek, Elfriede: *Lust*. Berlin 1992.
- Suckrad-Barre, Benjamin: *Soloalbum*. Köln 2009.
- Thompson, Michael: *Die Theorie des Abfalls. Über die Schaffung und Vernichtung von Werten*. Übersetzt von Klaus Schomburg. Stuttgart 1981.
- von Lange, Alexa Hennig: *relax*. Berlin 1999.
- [http://de.wikipedia.org/wiki/Katastrophentheorie\\_\(Mathematik\)](http://de.wikipedia.org/wiki/Katastrophentheorie_(Mathematik))
- <http://www.guggenheim.org/new-york/exhibitions/past/exhibit/4775>

Zusammenfassung

## Eine typologische Untersuchung der Abfalltheorie

Choi, Euna (Sungshin Frauen Uni)

Das Wort ‘Abfall’ bzw. ‘Müll’ wird meist im Hinblick auf den sozioökonomischen Bereich verwendet, während es im humanwissenschaftlichen Bereich selten vorkommt. Als Forschungsthema der Humanwissenschaften Abfall wenig Interesse gefunden, so dass dieses Thema bis dato Terra incognita bleibt.

Allerdings gibt es einige Ansatzpunkte in verschiedenen Forschungsbereichen, die das Thema Abfall zum Forschungsgegenstand machen könn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solche Ansätze für die Typologisierung der kulturellen Abfallforschung aufgegriffen und intensiv behandelt.

In den 1990er Jahren lässt sich in der zeitgenössischen deutschen Literatur ein augenfälliges Interesse Thema “Abfall” beobachten. Die deutschen Popliteraten haben Stoffe, Themen und Wörter, die bis dahin als wertlos galten, aktiv in ihre Werke aufgenommen. Markennamen, massenkulturelle Phänomene und Geschwätz, die in der literarischen Tradition bisher als Abfälle galten, erhalten einen gleichwertigen Status wie Elemente der Hochkultur und finden Eingang ins kulturelle Archiv. Darüber hinaus versuchen die deutschen Popliteraten, eine diesen Stoffen entsprechende Schreibästhetik zu entwickeln, welche man als Ästhetik des Abfalls bezeichnen könnte.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zuerst theoretische Ansätze für die Aufstellung der kulturellen Abfalltheorie vorgestellt, dann wird eine Typologisierung vorgenommen. Dabei werden Gedächtnistheorie, Postmodernismus und Kulturökonomie als Basisforschung einbezogen, um letztlich daraus die kulturwissenschaftlich orientierte Abfalltheorie aufzustellen. In diesem Zusammenhang werden auch literarische Beispiele von Rolf Dieter Brinkmann

und Rainald Goetz angeführt.

Im ersten Teil geht es vor allem um die Gedächtnistheorie von Assmann und die Medientheorie von Flusser. Bei Assmann wird untersucht, wie Abfälle mittels des Funktionsgedächtnisses aus dem Bereich des aufbewahrenden Vergessens, d.h des Speichergedächtnisses, ins kulturelle Archiv übergehen. Flusser fokussiert sich auf die schöpferische Wiederaufbereitung der Abfälle, indem er Müll und Abfall voneinander unterscheidet.

Im zweiten Teil handelt es sich um kulturökonomische Forschungen von Groys und Thomson. Groys untersucht den Begriff “das Neue”, wobei er zu dem Schluss gelangt, dass das Neue nichts Originelles bzw. Unerhörtes sondern etwas schon Gegebenes ist, das durch die Umwertung der Abfälle ins kulturelle Archiv eingegangen ist. Thomson erklärt die Aufwertung des Abfalls im Rahmen der Katastrophentheorie. Beiden Theoretikern ist gemeinsam, dass sie dem potentiellen kulturellen Wert des Abfalls ihre Aufmerksamkeit geschenkt und die Aufwertung des Abfalls als Gegenstand der Interpretation betrachtet haben.

Mit dem Überfluss an Produktion und Information in der spätkapitalistischen Gesellschaft und zugleich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gewinnt das Thema, -“Abfall”- immer mehr an Bedeutung. In dieser Arbeit habe ich die bestehenden Abfalltheorien bzw. die diesbezüglichen theoretischen Ansätze vorgestellt und eine Typologisierung vorgenommen. Der Frage, wie dieses Thema auch im literarischen Bereich diskutiert und literarisch gestaltet wird, soll in der folgenden Untersuchung nachgegangen werden.

주제어: 쓰레기, 유형화, 그로이스, 톰슨, 플루서, 아스만

Schlüsselbegriffe: Abfall, Typologisierung, Groys, Thompson, Flusser, Assmann

필자 E-mail: choisroad@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4. 10. 20, 논문심사일: 2014. 11. 17, 게재확정일: 2014. 11. 25.